

大學院間의 協同體制

黃 應 淵

(梨花女大 師範大學長)

우리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大學院間의 協同體制는 그동안 침체했던 대학원 교육을 活性化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대학원간의 문호를 개방하는契機가 됨으로써 보다 發展的인 學風을 조성하고 대학원의 學問的 內實을 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I. 改革의 必要성과 問題點

우리 나라의 高等教育은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수나 대학생 인구에 있어서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해방 당시에는 인구 2,500명당 대학생수가 1명꼴에 지나지 않았지만 '84년도 현재는 인구 100명당 대학생수가 1.5명이나 될 정도로 고등교육 인구가 대폭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대학 출신자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稀少價値 때문에 사회적 인정을 받아 왔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고, 도리어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하는 「社會 속의 大學」으로서의 기능을 요청받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엘리트층의 육성이라는 특권의식에서 탈피하여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창의적인 研究人力, 專門技術人力, 管理人力 등의 양성이란 현실적인 기능을 요청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들은 아직까지도 사회발전의 중추적인 頭腦機關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만큼 질적인 성장을 해 오지 못하였다. 즉, 고도의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촉매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연구체제를 갖추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학에서의 교수방법은 一方向的인 講義에 치중하여 왔으며, 전공학과간이나 대학간의 관계가 너무나 폐쇄적이어서 相互補完的인 교육을 시켜 오지 못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현실사회와 유리된 편협한 인간형을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데 그쳤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대학은 사회로부터 유리된 無風地帶의 위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생동감 넘치는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앞으로 전개될 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 나갈 人材를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研究機能은 사회발전의 필수 불가

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발전도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앞을 다투어 대학의 研究機能을 강화시키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교육기관의 構造上 上層에 속하는 大學院의 位置는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도 「大學院 中心의 大學」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고등교육의 중심이 대학원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단순히 量産化의 경향을 띠고 있는 데서 나타난 부산물만은 아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학원들은 고등교육의 중심이 學部教育에만 치중되어 왔기 때문에 마치 학부교육의 장식물처럼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대학 인구의 급증,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 학부교육의 대중화 등으로 말미암아 최근 10여년간 大學院 教育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II. 大學院 教育의 改善方向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대학원 교육의 제1차적 목적은 대학의 교원, 전문직 연구원, 학사행정가 등 이른바 學術研究職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사회발전의 증추적 頭腦機關으로서의 기능, 즉 研究機能을 발휘하게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원은 교육내적인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求心的 役割을 담당해야 하는 한편, 교육외적인 측면에서는 민족적, 문화적인 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觸媒役割을 담당해야 하는 동시에 고도의 경제발전, 두뇌산업의 조직화를 위한 政策, 戰略, 技術開發의 中樞 役割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학원들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學部教育과 大學院 教育의 성격 규정을 전제로 하여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이 각기

차별성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간의 運繫體制가 강구되어야 한다. 가령 학부와 대학원간의 學科目 내지 教育內容의 重複은 배제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원의 基礎科目, 先修科目으로 학부의 高學年 科目을 共同 受講하게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학부 학생으로서 졸업소요학점을 조기에 취득하고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원 과목을 수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特殊大學院)의 기능 분화와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여 양 대학원간의 運繫體制가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가 다르긴 하지만, 양 대학원에 모두 개설되어 있는 特定 學科 및 專攻에 있어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동일 과목을 共同受講케 하여 그 학점을 卒業學點으로 상호 인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각 대학원마다 제한되어 있는 物的 및 人的 資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대학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대학원 상호간의 協同體制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령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대학원에서는 동일 내지 관련 전공에서부터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이른바 學點 自由取得制와 共同講座制를 개설할 수 있으며, 圖書館과 實驗施設 등을 共同活用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協同體制 방안은 이미 1972년도부터 지역적으로 인접한 梨花, 延世, 西江 등의 3大學院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先導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네째,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학원생을 誘引하고 支援하는 體制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대학원은 입학제도의 합리적 개선, 장학금 지급제도의 확대, 대학원생의 有給助教로의 활용, 대학원생 전용의 共同研究 및 研究學舍의 설치 운영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특정전공 대학원생의 兵役問題 解決方案의 강구, 박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수료자에게 수여하는 學位制度의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한다. 대학원이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대체로 學術研究學位(research academic degree)와 職業專門學位(professional degree)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일반대학원에서 주로 전문적 학술인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수여하는 학위라고 한다면, 후자는 특수대학원에서 주로 자격업분야에서 전문적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여하는 학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양 대학원간의 기능 분화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위의 本來的 意味와 基準를 약화시키고, 학위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학위제도의 제정립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학원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필자는 대학원간의 協同體制 問題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Ⅲ. 大學院間의 協同體制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학원들은 최근 10여년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는 量的인 증가에 비하여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대학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과감한 革新과 變化를 통하여 발전적인 대학원의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학원간의 協同體制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1. 協同體制의 必要性

먼저 대학원간의 協同體制가 현실적으로 왜 必要하게 되었는가를 대학원 행정의 차원, 대학원 학생의 차원, 교수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원 행정의 차원에서 보면, 첫째, 한국의 대학원들은 전문화되어 가는 대학원 교육을 담당할 教授陣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대학원마다 獨立된 單位로 강좌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둘째, 전문화와 개별성이 요청되

는 대학원의 實驗施設과 圖書 등을 단위 대학원 별로로는 구비하기도 어렵거니와 현실적으로 지극히 빈약한 상태에 있으며, 셋째, 각 대학원마다 동일학과에 동일계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불필요한 人件費 및 實驗實習費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간의 협동체제를 수립하면 교수진의 상호 활용이 가능하며, 대학원 운영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시설 및 도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학원 학생의 차원에서 보면, 첫째, 他 大學院에서 수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타 대학원생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位置와 能力을 재인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善意的 競爭을 할 수 있으며, 둘째, 자기 대학원에서만 수강하는 경우에는 교수진 여하에 따라 강의 내용 자체가 너무 제한되기 쉬워 普遍性과 客觀性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셋째, 학문의 전문화와 개별성은 자칫 잘못하면 폐쇄적인 인간성을 길러 낼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간의 협동체제를 통한 學點交換制는 서로의 校風과 學風에 접하는 가운데서 학생 상호간의 폭 넓은 이해와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폭 넓은 師弟關係를 이룩하게 하는 계기도 된다.

끝으로 教授의 차원에서 보면, 첫째, 많은 수의 타대학원생이 수강함에 따라 휴강의 배제, 강의 내용의 충실, 교수간의 선의의 경쟁이 생겨 강의의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며, 둘째, 각 단위 대학원별로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전공에 따라 수강생의 과소로 정상적인 講義進行이 불가능하였지만 타 대학원생이 증원됨에 따라 정상적인 강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대학원간의 협동체제는 그동안 침체했던 대학원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문자 그대로 대학원간의 문호를 개방하는 先例를 만들어 보자 發展的인 學風을 조성하고 대학원의 학문적 내실을 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2. 3개 大學院間의 協同體制

梨花·延世·西江大의 3대학원은 1971년초부

터「아세아 기독교대학 발전위원회」(Commission for the Advancement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의 협력을 얻어 약 1년간의 준비계획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1972학년도 1학기부터 3대 학원간의 學點交換制度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점교환제는 한국의 대학원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목표를 세웠다.

- (1) 專門分野別로 단위 대학원마다 부족한 교수들의 상호 보완적 활용
- (2) 시설, 실험기구 및 도서관의 共同利用
- (3) 교수간의 善惡의 競爭心 유발과 그에 의한 학문의 發達성 및 敎養의 提擧
- (4) 학생간의 선의의 경쟁심 유발과 폭 넓은 교우 및 교우관계의 형성
- (5)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制度, 學事, 教育課程, 學部—大學院 및 碩·博士課程간의 유기적인 연관성 등에 대한 3대학원 공동연구의 추진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학원의 원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각 대학교의 위원 1명, 합계 6명으로「3대학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구체적인 제도와 규정을 확정하고 드디어 1972학년도 1학기부터 학점교환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3대학원 협의회」는 수시로 이 제도의 진행과정을 점검하면서 꾸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한편 每學期가 시작되기 直前인 2월과 7월에는 교환과목 개설을 위한 해당 학과장 및 과목 담당교수들의 連席會議를 개최하여 교수 상호간의 인간관계 형성과 학문의 개방을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이 제도의 進行狀況을 폭 넓게 學界와 社會에 알리는 동시에 성원을 얻기 위하여 학점교환제에 대한 案內書를 작성하여 전국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화·연세·서강의 3대학원간의 학점교환제가 손쉽게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과 같은 現實的 條件이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첫째는 3개 대학원이 모두 基督教 精神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

둘째는 3개 대학원이 서울의 西部地域인 新村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3개 대학원이 다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비슷한 質的 水準의 고등교육기관임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첫째, 3개 대학원의 位置가 근접해 있긴 해도 서로에 거리 때문에 학생들이 내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둘째, 講座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학문적 배경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내용의 이해도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난점이 없지 않았다.

셋째, 상당수의 대학원 학생이 助教를 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수강시간간의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며, 본 대학원의 강좌와 타 대학원의 강좌時間帶가 중복되기 때문에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넷째,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 실시로 말미암아 지도해야 할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데서 불만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

IV. 結 語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 나라 대학 및 대학원의 개혁의 필요성과 문제점,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의 개선방향, 그리고 대학원간의 協同體制의 필요성과 그 하나의 實例로서 梨花·延世·西江의 3大學院이 지금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學點交換制度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協同體制는 비단 3대학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내의 다른 대학원간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의 대학원과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協同體制가 확대된다면 한국의 대학원들은 보다 빠른 발전이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